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의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 성 우** · 민 성 희*** · 김 성 수****

해외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언어능력 개발은 이민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데, 이는 현지사회에서의 언어 소통능력이 이민국의 노동시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나타내는 이민자의 기술 수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는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을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미국 내의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 이주자들의 영어능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 미국의 센서스 자료(PUMS, A, 5%)를 이용하였다. 서열화된 범주를 가지고 있는 영어사용능력의 질적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기법은 Ordered Probit이다. 분석 결과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모국어가 보다 적게 사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를 할 때의 연령이 보다 낮은 경우, 학력이 보다 높은 경우에 영어를 보다 유창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이민자들의 영어사용능력의 수준은 출신국별 이민 역사와 모국어의 차이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였다.

핵심단어: 이민, 사회동화, 영어사용능력, 미국, 아시아계 이민자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사업 대학교육개혁지원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전공 조교수.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전공 대학원생.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전공 교수.

I. 서론

본격적으로 한인 해외이주의 기록이 시작된 것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후 한인의 해외이주는 최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구이민과, 1965년 이후 남-북미, 유럽의 여러 국가 등 주로 백인문화권으로 이주한 신이민으로 나눌수 있다(정성호, 1998). 신이민은 1960-70년대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떠나는 생계형이민에서 1980년대 이후 국내에 살아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자녀교육 등과 같은 삶의 질을 찾아 떠나는 행복추구형 이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30대 중산층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 60~70년대 초기 이민자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민국에 대한 정보도 풍부한 편이어서 최소한 2~3만불 이상의 정착금을 가지고 출발하는 준비된 이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언어문제와 현지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이민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윤인진, 2000).

최근의 '준비된 이민자' 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이민자들도 이민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다. 이민사회에서 원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은 이민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이다(Dustmann, 1994). 또한 영어사용능력은 단시일 내에 습득할 수 없고, 장기간 이민사회에 거주하고 활동할 때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도구다. 따라서 이민국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민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개인적 능력발휘에도 중요하다. 즉, 언어사용능력이 높을수록 이민사회에서의 동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민국(immigration countries)의 언어와 본국(mother countries)의 언어가 다른 이민자들의 경우 이민국의 언어습득여부는 현지 사회동화의 주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Salins, 1997). 이렇게 영어사용능력이 사회동화의 지표로 이민자들의 현지 동화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미국에 이민한 한국인 이민자와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현지사회로의 동화정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동화이론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해외

한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동향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영어사용능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 기법인 Ordered probit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 I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변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통계분석결과는 제V장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제VI 장에서는 분석에 따른 결과 및 이에 따른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민자들의 사회동화

새로운 국가로의 이동은 이민자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외국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출신국과는 다른 환경을 가진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즉, 이민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이민국의 문화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민국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자가 이민국 사회로 서서히 적응해가는 과정을 이민사회에 '동화' 된다고 한다(Thio, 1989: 246).

이민자의 동화는 이민 사회로의 경제적 통합이든,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적응이든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의 동화가 이민국이 경제적 건전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 이론이 있는 반면, 다양한 집단의 민족성 다양성에 가치를 주는 이론, 그리고 이민국에서의 동화 과정이 민족의 문화적 배경을 제거한다고 믿는 이론들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²⁾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자와 본토인 사이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이가 없어진다는 관념은 동화의 개념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민현상을 연구한 여러 문헌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사회학적·경제학적 연구는 기본 이론을 개념적으로

-
- 1) Choi H., "Overseas Koreans and Their Adaptation Patterns," Korea Journal 34(1)(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94)
 - 2) 다음 논문에서 이런 견해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전개되어 있다. Richard D. Lamm and Gary Imhoff, *The Immigration Time Bomb: The Fragmenting of America*(New York: E.P.Dutton, 1985)

정립하는 것이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 또한 이런 '도가니(melting pot)' 현상을 논박하는 것이었다.³⁾

오랫동안 '도가니'라는 은유적인 단어는 이민경험의 중요한 측면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민국에 도착했을 때, 이민자는 본토인과는 다른 문화·언어·정치 등의 면에 있어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자는 이민국의 체제에 점점 동화되게 된다. 그리고 점점 그런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런 차이가 없을 때 이민자는 본토인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민국 태생의 자녀가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 본토인과의 차이는 거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민 현상에 대한 지극히 낙관적(romantic)인 견해는 이민에 대해 유럽국가 출신의 집단이 지닌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적대감이 미국 사회 내로 녹아 없어지면서 새로이 미국적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극화한 1909년 Israel Zangwill의 극본 "The Melting Pot"에도 잘 나타나 있다(Salins, 1997).

하지만, 최근의 사회학적·역사학적 연구는 완전한 동화가 이민경험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관념을 부정한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이민이 이루어져 왔던 미국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이민 집단이나 민족 집단이 고유의 문화적 유산과 언어를 지키려는 뿌리깊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

동화의 과정(assimilation processes)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우선 이민자가 이민국의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절대적 '동화'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동화 현상이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인 만큼 동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이며, 동화과정에 미치는 사회적 변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Salins, 1997).

2. 이민과 동화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이민의 효과는 과잉인구와 주택난 해소, 실업해소의 기여, 외자 송금을 통한 국제수지에의 기여를 든다. 최근에는 선진 기술의 습득 촉진, 국위선양 등이 이

3) 고전적 동화이론은 Milton Gordon, *Assimilation and American Lif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에 나와있다.

민의 주요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550만의 교포들이 우리나라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의교관이요, 우리 나라를 해외에 홍보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생존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민족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추세를 볼 때 해외 한인들은 우리 민족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광규, 2000).

해외 한인이 우리 민족에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 한인에 대한 폭 넓은 기초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해외 거주 한인들에 대한 연구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주 한인들은 이민시기, 이민지역 및 이민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에(이광규, 2000),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에 맞는 상세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민족에 대한 연구를 금하였기 때문에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고, 최근에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정성호(1998)는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 한인의 생활 양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 구소련 지역의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기초자료에만 의존한 한계가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한 김두섭(1998)의 연구는 캐나다 한인에 대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과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캐나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밴쿠버 1개시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과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금룡(1997)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 지역공동체의 거주여부를 분석의 한 지표로 삼았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민족 지역공동체 거주여부는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영어사용능력의 향상정도에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최병목(1996)은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자영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미 한국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거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상이나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화의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인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영어사용능력을 동화과정의 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한 논문(최병목, 1996; 이금룡, 1997)은 있었지만,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니었다.

이민이 주요한 사회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이민국에서는 이민자들의 이민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동화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민국에서 동화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지표들은 주택지표, 영어사용능력, 소득수준, 시민권 취득여부 등을 들 수 있다 (Borjas, 1985, 1994, 1995; Chiswick, 1978; Myers and Lee, 1996, 1998). 그 중에서 영어사용능력에 관련된 국외연구 (Dustmann, 1994; Lindstorm and Massey, 1994; Chiswick, 1998; Chiswick and Miller, 1999)는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졌으나,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국외 연구들 중에서도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영어사용능력은 이민국에서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사용능력은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참여 및 소득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Dustmann, 1994, Lindstorm and Massey, 1994, Chiswick, 1998, Chiswick and Miller, 1999). Chiswick and Miller(1994)는 영어사용능력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제일 먼저 이민기간과 이민당시의 연령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민기간이 길거나,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이주한 이민자일수록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된다 (Dustmann, 1994; Chiswick, 1998; Chiswick and Miller, 1999). Dustmann(1994)은 독일이민자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분석하면서 취학자녀유무,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 배우자의 국적 등이 언어사용능력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의 사용능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iswick(1998)은 집에서 히브리어 사용유무, 자녀유무, 거주지역, 이민전 결혼유무가 현지 언어사용능력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연구 모두 언어와의 접촉정도, 즉 얼마나 이민국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문해율 (literacy) 역시 현지 언어 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연구방법론

영어사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기법은 Ordered probit이다. 미국 센서스 자료(PUMS)에서는 이 변인을 서열화된 변인(본 연구에서는 못함, 잘하는 편임, 매우 잘함, 영어만 사용으로 구분)으로 부호화(coding)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열화된 변인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ordered probit이 가장 적합한 분석기법으로 여겨지고 있다(Green, 1993; Maddala, 1983). 상세한 본 연구의 계량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이고 연속적인 변수 y_i^* 는 연속적인 크기로 조사대상자 i 번째 사람에 대한 영어사용능력 대한 평가 반응을 나타낸다. y_i^* 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 a 를 가진 변수 X_i 에 대해 가중된 벡터 y 의 선형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y_i^* = X_i' \alpha + \varepsilon_i \quad (1)$$

ε_i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 인 정규분포를 이룬다.; $\varepsilon_i \sim N(0, \sigma^2)$

변수 y_i^* 는 실제 관측되지 않는 관계로, 본 모형은 범주를 y_i^* 로 나누는 y_i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egin{aligned} y_i &= 1 \text{ iff } y_i^* \leq \theta_1 \\ y_i &= 2 \text{ iff } \theta_1 < y_i^* \leq \theta_2 \\ y_i &= 3 \text{ iff } \theta_2 < y_i^* \leq \theta_3 \\ y_i &= 4 \text{ iff } y_i^* > \theta_3 \end{aligned} \quad (2)$$

경험의 법칙(Green, 1993)에 따라 $\sigma^2 = 1$ 로 놓아 정규화를 하고 (1)과 (2)를 합치면, 개인이 각각의 범주에 놓이게 되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y_i = 1) = \Phi[\mu_1 - X_i' \beta] \quad (3-a)$$

$$\Pr(y_i = 2) = \Phi[\mu_2 - X_i' \beta] - \Phi[\mu_1 - X_i' \beta] \quad (3-b)$$

$$\Pr(Y_i = 3) = \Phi[\mu_2 - X_i' \beta] - \Phi[\mu_1 - X_i' \beta] \quad (3-c)$$

$$\Pr(Y_i = 4) = \Phi[X_i' \beta - \mu_3] \quad (3-d)$$

여기에서 $\Phi(\cdot)$ 는 표준정규분포함수이고, $\beta = \frac{a}{\sigma}$, $\beta = \frac{a}{\sigma}$, $j=1,2,3$ 이다. 비율 $\frac{a}{\sigma}$, $\frac{\theta_j}{\sigma}$ 는 상기의 분포 하에서 추정이 가능하며,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한 likelihood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L = \prod_{y_i=1} [\Phi(\mu_1 - X_i' \beta)] \prod_{y_i=2} [\Phi(\mu_2 - X_i' \beta) - \Phi(\mu_1 - X_i' \beta)] \\ \prod_{y_i=3} [\Phi(\mu_3 - X_i' \beta) - \Phi(\mu_2 - X_i' \beta)] \prod_{y_i=4} [\Phi(X_i' \beta - \mu_3)] \quad (4)$$

벡터 X_i 는 constant ter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식 (4)에서 계수의 모든 집합은 정의되지 않았다. Ordered probit 통계식에서 정의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번째 경계(threshold)인 $\mu_1=0$ 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의 종속변인(영어사용능력)이 4개의 서열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에서 추정되는 μ 의 수는 2개다(cf. Maddala, 1983: 46-49). 모형의 추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Log-likelihood 함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_n = L^* = \sum_{y_i=1} \ln[\Phi(-X_i' \beta)] + \sum_{y_i=2} \ln[\Phi(\mu_2 - X_i' \beta) - \Phi(-X_i' \beta)] \\ + \sum_{y_i=3} \ln[\Phi(\mu_3 - X_i' \beta) - \Phi(\mu_2 - X_i' \beta)] + \sum_{y_i=4} \ln[\Phi(X_i' \beta - \mu_3)] \quad (5)$$

IV. 데이터 및 변인 설명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1990년 센서스 데이터(PUMS A, 5%)⁴⁾를 이용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영어사용능력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PUMS는 미국에서 매10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로서 그 자료 및

변인의 다양함과 정확성으로 인해 미국 통계청(the Census Bureau)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연령은 15-65세로 제한하였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출신지 국가별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교육 및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또한 남, 여간에 생물학적, 사회적기능의 차이로 인하여 이민자들의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1〉과 〈표 2〉는 인종별, 남자, 여자별 이민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남자의 경우 일본이 영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65.1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30.11%, 중국 17.30%, 한국 13.32% 순이었으며, 베트남이 5.13%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아시아 5개국 중 미국사회로의 이민역사가 가장 오래되어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민 2,3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필리핀의 경우는 모국어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55.37%로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 25.26%, 한국 16.32%, 중국 15.92%, 베트남 6.18%로 나타났다. 이민기간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 일본이 미국출생이 다른 인종보다 높았으며, 최근 10년간 이민자는 베트남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 교육수준은 남자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은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많은 반면, 필리핀, 베트남은 대졸이하나 고졸이하의 학력자가 많았다. 여자의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은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많았으나, 베트남은 고졸이하의 학력자 비율이 제일 높았다.

모든 인종에서 봉급생활자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한국은 다른 인종에 비해 자영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학자녀 유무는 모든 인종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여 모두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도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영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가장 낮았다.

〈부록 1〉과 〈부록 2〉는 각각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4개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어린 연령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 미국의 1990년 센서스 데이터(PUMS A, 5%)중에서 아시아 5개국만을 샘플링 했다. 결혼하지 않은 집단, 가구주가 결혼한 가정에 살고 있으나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 집단, 가구주가 결혼한 가정에 살면서 가구주나 배우자인 집단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가구주가 결혼한 가정에 사육 있으나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 집단중에서 아시아 5개국이 아닌 약 3%의 샘플은 제외하였다. 결혼한 사람일 경우 배우자도 아시아 5개국 사람일 때만을 샘플링 했다.

〈표 1〉 이민자들의 일반특성(남자)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N	%	N	%	N	%	N	%	N	%
영어사용 능력	못함	2,498	23.58	5,128	19.06	969	7.12	665	3.28	2,415	23.62
	잘함	3,243	30.61	7,724	28.71	1,704	12.52	3,859	19.02	4,009	39.21
	매우 잘함	3,442	32.49	9,395	34.93	2,070	15.21	9,658	47.60	3,275	32.03
	영어만 사용	1,441	13.32	4,653	17.30	8,866	65.15	6,109	30.11	525	5.13
이민기간	미국출생	867	8.18	5,754	21.39	9,387	68.98	4,917	24.23	208	2.03
	1-5년	2,671	25.21	5,745	21.36	2,127	15.63	3,282	16.17	2,067	20.22
	6-10년	2,515	23.74	5,655	21.02	461	3.39	3,277	16.15	3,832	37.48
	11-20년	3,817	36.03	6,100	22.68	759	5.58	5,629	27.74	4,035	39.47
	21-30년	580	5.47	2,603	9.68	514	3.78	2,433	11.99	71	0.69
	31년이상	144	1.36	1,043	3.88	361	2.65	753	3.71	11	0.11
교육수준	고졸이하	1,989	18.77	6,206	23.07	1,354	9.95	3,805	18.75	3,845	37.61
	대졸이하	4,648	43.87	9,418	35.01	6,705	49.27	10,459	51.55	4,704	46.01
	대졸이상	3,957	37.35	11,276	41.92	5,550	40.78	6,027	29.70	1,675	16.38
직업	자영업	2,569	24.25	3,153	11.72	1,397	10.27	1,021	5.03	732	7.16
	봉급생활자	6,404	60.45	20,111	74.76	11,025	81.01	17,259	85.06	7,349	71.88
	무직	1,621	15.30	3,636	13.52	1,187	8.72	2,011	9.91	2,143	20.96
	영어만 사용	860	8.12	3,218	11.96	6,934	51.32	3,129	15.42	261	2.55
	다른언어 사용	9,734	91.88	23,682	88.04	6,625	48.68	17,162	84.58	9,963	97.45
취학자녀 유무	자녀없음	8,091	55.44	17,265	62.19	11,822	69.24	14,781	57.55	5,015	54.70
	취학자녀 없음	1,860	12.75	3,091	11.13	1,528	8.95	2,919	11.37	933	10.18
	적어도 한명은 취학자녀	4,642	31.81	7,407	26.68	3,724	21.81	7,984	31.09	3,220	35.12
배우자의 언어능력	못함	1,708	16.12	3,311	12.31	509	3.74	268	1.32	1,098	10.74
	잘함	2,260	21.33	4,277	15.90	1,066	7.83	2,089	10.30	1,663	16.27
	매우 잘함	1,539	14.53	4,569	16.99	1,132	8.69	5,701	28.10	979	9.58
	영어만 사용	361	3.41	2,151	8.00	4,429	32.54	1,957	9.64	86	0.84
	배우자 없음	4,726	44.61	12,592	46.81	6,423	47.20	10,276	50.64	6,398	62.58

〈표 2〉 이민자들의 일반특성(여자)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N	%	N	%	N	%	N	%	N	%
영어사용 능력	못함	3,796	26.01	6,781	24.42	1,712	10.03	947	3.69	2,937	32.04
	잘함	4,183	28.66	7,482	26.95	2,610	15.29	4,835	18.82	2,935	32.01
	매우 잘함	4,232	29.00	9,081	32.71	3,298	19.32	13,415	52.23	2,729	29.77
	영어만 사용	2,382	16.32	4,419	15.92	9,454	55.37	6,487	25.26	567	6.18
이민기간	미국출생	931	6.38	5,457	19.66	9,452	55.36	4,716	18.36	174	1.90
	1-5년	3,351	22.96	6,421	23.13	2,350	13.76	5,022	19.55	2,013	21.96
	6-10년	3,067	21.02	5,758	20.74	624	3.65	4,698	18.29	2,856	31.15
	11-20년	5,905	40.46	6,479	23.34	1,491	8.73	7,794	30.35	3,934	42.91
	21-30년	1,160	7.95	2,777	10.00	1,617	9.47	2,808	10.93	172	1.88
	31년이상	179	1.23	871	3.14	1,540	9.02	646	2.52	19	0.21
교육수준	고졸이하	3,956	27.11	7,199	25.93	2,060	12.07	4,892	19.05	4,348	47.43
	대졸이하	7,252	49.70	11,133	40.10	10,057	58.90	11,064	43.08	3,880	42.32
	대졸이상	3,385	23.20	9,431	33.97	4,957	29.03	9,728	37.88	940	10.25
직업	자영업	2,059	14.11	2,050	7.38	943	5.54	928	3.61	596	6.50
	봉급생활자	8,492	58.19	19,416	69.93	11,948	69.98	21,166	82.41	5,482	59.79
	무직	4,042	27.70	6,297	22.68	4,180	24.48	3,590	13.98	3,090	33.70
	영어만 사용 다른언어 사용	1,846 12,747	12.65 87.35	3,351 24,412	12.07 87.93	8,131 8,943	47.62 52.38	4,024 21,660	84.33 15.67	379 8,789	4.13 95.87
취학자녀 유무	자녀없음	8,091	55.44	17,265	62.19	11,822	69.24	14,781	57.55	5,015	54.70
	취학자녀 없음	1,860	12.75	3,091	11.13	1,528	8.95	2,919	11.37	933	10.18
	적어도 한명은 취학자녀	4,642	31.81	7,407	26.68	3,724	21.81	7,984	31.09	3,220	35.12
배우자의 언어능력	못함	2,738	18.76	4,505	16.23	1,276	7.47	422	1.64	1,597	17.42
	잘함	3,038	20.82	4,470	16.10	1,788	10.47	2,908	11.32	1,582	17.26
	매우 잘함	2,248	15.40	4,504	16.22	2,062	12.08	7,963	31.00	1,089	11.88
	영어만 사용	933	6.39	2,297	8.27	5,394	31.59	2,714	10.57	223	2.43
	배우자 없음	5,636	38.62	11,987	43.18	6,554	38.39	11,677	45.46	4,677	51.01

이민당시 연령이 남자 22.60세, 여자 22.58세로 비슷한 연령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남자의 경우 일본이 8.22세로 다른 아시아 4개국보다 가장 어린연령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이 22.60세로 가장 많은 연령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일본이 11.66세로 가장 어린연령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 22.58, 22.64로 일본에 비해 늦은 연령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험은 모든 국가별 이민자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았다. 인종별로는 남자, 여자 모두 이민당시 연령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남자 15.12년, 여자 17.48년으로 사회경험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은 남자 4.28년, 여자 8.13년으로 일본과 약 10년의 차이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은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의 모형에 사용될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다. 영어사용능력이 1990년 센서스 데이터에는 5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나, 영어를 전혀 못함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전혀 못함과 잘 못함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4개의 범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선택은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크게 개인특성변수와 언어접촉정도변수로 나누었다. 개인특성변수는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이민당시 연령, 이민기간, 사회경험, 교육수준,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접촉정도변수는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를 나타내는 변수로 집에서 영어사용 유무, 취학자녀 유무,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 미국내 거주지역의 주(state)별 동일 민족수로 이루어져 있다.

변인들의 부호화(coding)는 미국 센서스 자료에 있는 원래의 변인별 특성을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민기간, 교육수준, 직업, 집에서 영어사용 유무, 취학자녀유무, 배우자의 언어능력은 더미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연령, 이민당시 연령, 사회경험, 동일 민족수는 연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개인특성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다. 특히 이민당시 연령은 기존연구에서 영어사용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 연령에 이민 했을 때, 그 사회에 동화가 더 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ustmann, 1994; Chiswick, 1998; Chiswick and Miller, 1999). 연령과 이민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개인의 영어사용능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일수록 영어습득능력이 더 뛰어나다. 따라서 더 어린 연령에 이민을 하게 되면 영어사용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다.

〈표 3〉 변인 설명

구 분	변 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영어사용능력	ENG1	영어를 매우 못함/잘 못함
		ENG2	영어를 잘함
		ENG3	영어를 매우 잘함
		ENG4	영어만 사용
개인특성	연령	AGE5	연령
		AGE_SQ	
		ENTRAGE	이민당시 연령
	이민당시연령	IMM1	미국출생 (Reference)
		이민기간	IMM2
	IMM3		이민기간 6-10년
	IMM4		이민기간 11-20년
	IMM5		이민기간 21-30년
	IMM6		이민기간 31년 이상
	사회경험		EXP
		EXP_SQ	
	교육수준	ED1	고졸이하
		ED2	대졸이하 (Reference)
ED3		대졸이상	
직업	STATUS1	자영업	
	STATUS2	봉급생활자	
	STATUS3	무직 (Reference)	
언어접촉정도	집에서 영어사용 유무	RLANG	영어만사용(1)
		취학자녀 유무	CHILD1
	CHILD2		취학자녀 없음 (Reference)
	CHILD3		적어도 한명은 취학자녀
	배우자의 언어능력	ESPO1	영어를 매우 못함/잘 못함
		ESPO2	영어를 잘함
		ESPO3	영어를 매우 잘함
		ESPO4	영어만 사용
		ESPO5	배우자 없음 (Reference)
	동일 민족수	NUM_AREA	거주지역내 같은 민족수

이민기간도 영어사용능력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이민기간이 길수록 직장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이웃들과 대화를 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면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영어사용능력은 향상될 것이며, 이민 직후 몇 년 동안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지만 이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Chiswick, 1998). 그러나 이민기간이 길수록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고령에 이민을 와서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즉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기간이 길다고 해서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경험⁵⁾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경험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민 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민기간을 사회경험으로 간주하였고, 이민 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경험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영어사용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Chiswick and Miller, 1994; Chiswick and Miller, 1999).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졸이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센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집단변인이기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연속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⁶⁾ 사회경험이 오래 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사용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사회경험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말한다. 직장생활은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모국어를 잘 공부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좀더 능숙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업은 크게 자영업, 봉급생활자, 무직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어사용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으므로 영어사용능력이 높을 것이

5) 이민전에 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알기 위해 보통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인 24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rjas(1994)가 사용한 경험변인을 사용하였다. 즉 이민당시연령이 24세보다 많으면 사회경험은 연령에서 전입당시 연령을 제외하였고($\text{exp}=\text{age}-\text{entrage}$), 이민당시연령이 24세보다 같거나 작으면 사회경험은 연령에서 교육 년수를 빼고 거기에 취학 연령인 5를 차감하였다($\text{exp}=\text{age}-\text{school}-5$).

6) 연속변인으로 처리할 경우 대학졸업자의 경우 16년, 대학 3년 중퇴자의 경우 15년으로 부호화되나, 졸업 여부에 따른 1년 차이는 사회에서 실제로는 그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에 교육 관련 변인의 경우 dummy 변인으로 처리하는게 더욱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다 (Hoffman and Link, 1984; Myers and Lee, 1996; Yuengert, 1994)

다.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영어사용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많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영어를 사용한다면 영어사용능력은 매우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집에서 모국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어사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유무는⁷⁾ 부모들의 영어사용능력에 영향을 미친다(Dustmann, 1994; Chiswick and Miller, 1999).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업과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어사용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어사용능력이 저하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취학자녀가 부모들을 집에 고립시킬 수도 있다. 자녀가 부모와 외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부모들의 영어사용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여자의 경우 자녀를 보살피는 역할이 있어 사회생활의 기회가 적어지게 됨으로 영어사용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Chiswick and Miller, 1999).

Dustmann(1994)은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을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도 취학자녀 유무와 비슷한 예상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이 높으면 이민자가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이민자의 고립을 통해서 저하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여자의 경우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 민족수⁸⁾도 영어사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에 같은 민족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는 많아지고 영어를 사용할 기회는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 적은 지역에 살수록 영어사용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7) 1990 PUMS 데이터에서 취학자녀여부를 알 수 있는 자녀연령(RAGECHLD)는 개인변수에 있고 단지 여자일 경우에만 그 값이 제공된다. 따라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남자의 경우 여자의 자녀연령 변수와 동일하게 하였다.

8) 동일 민족수는 새로 생성한 변수이다. 주별로 아시아 5개국의 인구수 데이터를 만들어 원데이터 합쳤다.

V. 분석결과

(표 4)는 남자의 영어사용능력의 분석결과다.⁹⁾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 중국, 베트남은 연령이 낮을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한계효과는 영어만 사용의 경우 한국이 -1.72%, 중국이 -0.11%, 일본이 0.03%, 필리핀이 -0.32%, 베트남이 0.00%로 나타나서 높은 연령 계층일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이민당시 연령(ENTRYAGE)은 이민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영어사용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연령 계층일수록 영어습득이 빠르고, 동화가 쉽게 되기 때문이다. 연속 변인에 대한 설명은 개별 변인들의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구하면 더욱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Ordered probit에서 사용되는 한계효과를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text{prob}(y = j)}{\partial x_k} = [f(u_{j-1} - \sum_{k=1}^k \beta_k x_k) - f(u_j - \sum_{k=1}^k \beta_k x_k)] \beta_k \quad (6)$$

이민당시 연령에 따른 한계효과는 한국의 경우, 못함 0.00%, 잘함 1.18%, 매우 잘함 1.01%, 영어만 사용 -2.16%로 이민당시 연령이 한 살이 더 많게 되면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른 4개국도 영어만 사용이 중국 -0.01%, 일본 -0.01%, 필리핀 -1.16%, 베트남 -0.03%로 영어사용능력이 모두 낮아졌다.

사회경험(EXP)은 예상과 달리 사회경험이 많을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이 변인이 조사당시 이민자들의 연령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언어학습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현시사회에서의 교육에 따른 영어습득기회가 더욱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경험이 많은 성인의 경우보다 사회경험이 적은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이 높게

9)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형은 모형적합도(model fit: -2 LL, AIC, SC)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을 때, 약 10개의 서로 다른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도출된 최적의 모형이다.

〈표 4〉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인종별 결과(남자)

변 인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Constant	4.4374 ***	4.6034 ***	2.3832 ***	4.9943 ***	3.0573 ***
AGE	-0.0517 ***	-0.0595 ***	0.0610 ***	-0.0082	-0.0035 ***
AGE_SQ	0.0012 ***	0.0005 ***	-0.0007 ***	0.0004 ***	0.0008 ***
ENTRYAGE	-0.0652 ***	-0.0054 *	-0.0090 *	-0.0296 ***	-0.0810 ***
IMM2	-1.3916 ***	-2.0256 ***	-2.2181 ***	-2.0613 ***	-0.9011 ***
IMM3	-0.7797 ***	-1.4187 ***	-1.6641 ***	-1.4360 ***	-0.4390 ***
IMM4	-0.5655 ***	-0.9770 ***	-1.1260 ***	-0.9734 ***	-0.3301 ***
IMM5	-0.6631 ***	-0.7253 ***	-0.7878 ***	-0.6925 ***	-0.6703 ***
IMM6	-1.0609 ***	-0.4743 ***	-0.5373 ***	-0.5024 ***	-1.9715 ***
EXP	-0.1077 ***	-0.0607 ***	-0.0572 ***	-0.0918 ***	-0.0789 ***
EXP_SQ	0.0016 ***	0.0009 ***	0.0005 **	0.0008 ***	0.0009 ***
ED1	-0.0821	-0.3917 ***	0.1518 **	-0.0709 *	-0.2391 ***
ED3	0.1060 **	0.2526 ***	0.0444	0.1414 ***	0.1106 ***
STATUS1	0.0952	0.0227	-0.0258	-0.1716 **	0.2498 ***
STATUS2	0.1696 ***	0.0173	0.2053 ***	-0.1113 **	0.2424 ***
RLANG	7.2279 *	6.4656 ***	4.9085 ***	5.5285 ***	8.0598
CHILD1	-0.0459	0.0895 *	-0.1479 *	0.1095 *	0.0725
CHILD3	0.1411 **	0.1946 ***	-0.0484	0.1185 **	0.2463 ***
ESPO1	-8.1012 **	-8.0992 **	-8.5793	-9.4788 ***	-7.8564 ***
ESPO2	-0.0686	-0.4173 ***	-0.5877 ***	-1.3561 ***	-0.1600 **
ESPO3	1.8226 ***	1.3747 ***	0.5816 ***	0.6815 ***	1.6668 ***
ESPO4	6.8220 *	6.1861 ***	4.4437 ***	5.1455 ***	7.8263
NUM_AREA	-0.0087 ***	-0.0036 ***	-0.0066 ***	0.0006	-0.0110 ***
MU2	1.8423	1.7756	1.4968	1.8038	1.7325
MU3	4.2385	4.5666	3.1083	4.3049	4.0168
No. of Obs.	10594	26900	13609	20291	10224
-2 Log L Intercept Only	28324.619	72368.877	27596.281	46362.918	25050.497
With Covariates	12838.519	32379.052	10596.537	23663.542	15359.133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유추되었다고 판단된다.

교육수준은 예상과 같이 대졸이상 학력자(ED3)가 대졸이하의 학력자(ED2)보다 영어사용능력이 높았으며, 반면에 고졸이하 학력자(ED1)가 영어사용능력이 낮았다. 일본의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자가 대졸이하의 학력자보다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가지지 못했다.

무직자(STATUS3)에 비해 한국, 일본, 베트남은 일하는 사람(STATUS1, STATUS2)이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중국과 필리핀은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영어사용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필리핀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과 상관없이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영어사용능력이 높았으며, 모든 인종집단에 있어서 집에서 영어를 사용(RLANG)하면 영어사용능력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 모두 집에서 영어사용이 영어사용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취학자녀 유무(CHILD)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예상이 가능하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적어도 취학자녀가 한명이상 있는 사람(CHILD3)은 취학자녀가 없는 사람(CHILD2)에 비해 영어사용능력이 높았으나 일본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국가 이민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우 이민 역사가 오래되어서 미국화가 되어 있다는 점과, 현지에 자녀 없이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우 대부분 상업적 목적의 일시 체류자가 많은 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개국 모두 배우자가 영어만 사용하거나(ESPO4), 영어를 매우 잘하는(ESPO3)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ESPO5)에 비해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어를 못하거나(ESPO1), 영어를 잘하는(ESPO2) 사람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도 영어사용능력이 낮았다. 이를 통해서 배우자가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사용능력이 낮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같이 영어사용능력이 낮았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같은 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영어사용능력이 낮았다. 이는 앞에서 예상했듯이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영어사용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집단적 거주가 일반적인 거주형태를 나타내는 다른 아시아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필리핀인의 경우 주거지역이 일정하게 군집되지 않았다는 측면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왔던 연유가 필리핀 이민자들의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군집효과가 유의성이 없는 연유라고 하겠다.

(표 5)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인종별 결과(여자)

변 인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Constant	3.6122 ***	4.0562 ***	2.5411 ***	5.6540 ***	3.0131 ***	
AGE	-0.0022	-0.0479 ***	0.0899 ***	-0.0538 ***	-0.0168	
AGE_SQ	0.0003 *	0.0002 **	-0.0011 ***	0.0006 ***	0.0005 ***	
ENTRYAGE	-0.0601 ***	-0.0031	-0.0043	-0.0180 ***	-0.0491 ***	
IMM2	-1.1943 ***	-1.8959 ***	-2.4230 ***	-1.9773 ***	-1.3005 ***	
IMM3	-0.5932 ***	-1.3222 ***	-1.7104 ***	-1.4334 ***	-0.6044 ***	
IMM4	-0.3224 ***	-0.8744 ***	-1.1090 ***	-1.0154 ***	-0.2916 *	
IMM5	-0.1940 *	-0.6228 ***	-0.6679 ***	-0.7329 ***	-0.1816	
IMM6	-0.6102 **	-0.5170 ***	-0.3676 ***	-0.3044 ***	-0.6905	
EXP	-0.0898 ***	-0.0529 ***	-0.0883 ***	-0.0600 ***	-0.0856 ***	
EXP_SQ	0.0014 ***	0.0010 ***	0.0011 ***	0.0005 ***	0.0012 ***	
ED1	-0.0488	-0.4697 ***	-0.0678	-0.1463 ***	-0.2165 ***	
ED3	0.0550 *	0.1976 ***	0.0338	0.2023 ***	0.0710	
STATUS1	0.0137	0.1155 **	-0.0573	-0.0380	-0.2096 **	
STATUS2	0.0609 *	0.0866 ***	0.0488	0.0300	0.1820 ***	
RLANG	7.3296 ***	7.5053 **	5.4426 ***	5.9684 ***	8.5064 ***	
CHILD1	0.1457 **	0.2347 ***	0.0706	0.1707 ***	0.2047 ***	
CHILD3	0.1539 ***	0.1981 ***	-0.1031	0.1617 ***	0.2496 ***	
ESPO1	-7.4985 ***	-7.6185 ***	-9.1452 ***	-9.5678 ***	-7.3734 *	
ESPO2	-0.0858 *	-0.2093 ***	-0.8397 ***	-1.3055 ***	0.1017 *	
ESPO3	1.9797 ***	1.6156 ***	0.8302 ***	0.8651 ***	1.9945	
ESPO4	7.1124 ***	7.7239 **	4.7434 ***	5.7327 ***	9.0698 ***	
NUM_AREA ¹⁾	0.0000 ***	0.0000 ***	0.0000	0.0000 **	0.0000 ***	
MU2	1.9501	1.7293	1.8026	1.8408	1.6711	
MU3	4.4942	4.3151	3.8833	4.7132	4.2385	
No. of Obs.	14593	27763	17074	25684	9168	
-2 Log L	Intercept Only	39789.312	75276.367	39701.365	57678.641	23142.521
	With Covariates	15097.249	31365.845	12446.612	26741.667	11818.417

주: 1) 결과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값에 1000배를 해주었다.
 2) * $p < .05$; ** $p < .01$; *** $p < .001$.

〈표 5〉는 여자의 영어사용능력 분석결과다. 일본은 남자의 경우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의 경우 연령이 많다는 것은 이민기간이 긴 것으로 이민기간이 길면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된다. 이는 이민당시 연령이 일본이 다른 4개국에 비해 약 10년 정도가 적은 데 연유한다. 이민당시연령(ENTRYAGE)이 어릴수록, 이민기간(IMM)이 길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민당시 연령에 따른 한계효과는 한국의 경우 못함 0.59%, 잘함 1.72%, 매우잘함 -2.26%, 영어만 사용 -0.04%로 이민당시 연령이 한 살이 많아지면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개국의 이민당시 연령에 따른 한계효과는 영어만 사용의 경우 중국 -0.01%, 일본 0.06%, 필리핀 -0.66%, 베트남 0.00%로 나타나서 한국인 이민자들의 한계효과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경험(EXP)이 많을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지는 것은 남자의 경우와 같이 설명할 수 있고, 봉급생활자(STATUS2)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일하지 않는 사람(STATUS3)에 비해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자영업(STATUS1)의 경우에 중국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트남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국인의 미국 주류사회에서의 자영업 진출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RLANG) 경우 5개국 모두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가 적어도 한명 있는 경우(CHILD3)는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취학자녀가 없는 경우(CHILD2) 보다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일본은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남자의 경우와 달리 자녀가 없는 경우(CHILD1)가 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미취학자녀를 둔 여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에서 자녀를 보살피야 하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영어사용능력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ESPO)과 동일 민족수(NUM_AREA)는 남자의 경우와 같이 모두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이 높을수록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도 높게 나타났고, 같은 민족이 적게 사는 지역에 거주할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표 6〉과 〈표 7〉은 함수식 (6)을 이용하여 범주화 된 종속변수에 대한 이민기간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한 것이다. 〈표 6〉은 남자의 경우 인종별 이민기간에 따른 영어사용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출생이 매우 잘함과 영어만

〈표 6〉 인종별 이민기간에 따른 영어사용능력(남자)

인종	이민기간	영어사용능력			
		못함	잘함	매우잘함	영어만 사용
한국	미국출생	1.88	38.76	57.82	1.54
	1-5년	24.58	63.00	12.39	0.02
	6-10년	9.69	60.95	29.20	0.16
	11-20년	6.50	56.37	36.80	0.32
	21-30년	7.84	58.66	33.26	0.24
	31년이상	15.43	64.08	20.43	0.06
	중국	미국출생	0.08	8.20	83.71
1-5년		12.78	61.07	26.11	0.03
6-10년		4.06	47.22	48.48	0.24
11-20년		1.44	32.66	65.03	0.86
21-30년		0.74	24.68	72.92	1.66
31년이상		0.36	17.72	78.91	3.01
일본		미국출생	0.00	0.00	0.03
	1-5년	0.00	0.26	11.65	88.09
	6-10년	0.00	0.04	4.11	95.85
	11-20년	0.00	0.01	1.15	98.84
	21-30년	0.00	0.00	0.45	99.55
	31년이상	0.00	0.00	0.21	99.79
	필리핀	미국출생	0.00	0.05	21.56
1-5년		0.12	10.90	78.88	10.10
6-10년		0.01	3.20	71.02	25.77
11-20년		0.00	1.03	56.42	42.54
21-30년		0.00	0.47	45.82	53.70
31년이상		0.00	0.27	38.59	61.14
베트남		미국출생	6.69	52.54	40.18
	1-5년	27.49	59.68	12.80	0.03
	6-10년	14.46	60.48	24.91	0.16
	11-20년	12.12	59.23	28.43	0.22
	21-30년	20.36	61.33	18.24	0.07
	31년이상	68.17	30.46	1.37	0.00

〈표 7〉 인종별 이민기간에 따른 영어사용능력(여자)

인종	이민기간	영어사용능력			
		못함	잘함	매우잘함	영어만 사용
한국	미국출생	1.20	36.78	60.75	1.26
	1-5년	14.42	66.87	18.68	0.03
	6-10년	4.82	56.49	38.46	0.23
	11-20년	2.66	48.00	48.82	0.52
	21-30년	1.96	43.59	53.70	0.75
	31년이상	4.99	56.97	37.82	0.22
중국	미국출생	0.16	11.12	80.25	8.47
	1-5년	14.80	60.51	24.64	0.05
	6-10년	5.28	49.13	45.25	0.35
	11-20년	1.94	34.86	61.98	1.23
	21-30년	1.02	26.78	69.91	2.29
	31년이상	0.77	23.60	72.71	2.93
일본	미국출생	0.00	0.00	0.44	99.56
	1-5년	0.00	1.15	41.19	57.66
	6-10년	0.00	0.14	18.11	81.75
	11-20년	0.00	0.02	6.57	93.41
	21-30년	0.00	0.00	2.57	97.43
	31년이상	0.00	0.00	1.23	98.77
필리핀	미국출생	0.00	0.02	26.48	73.50
	1-5년	0.04	6.35	84.75	8.86
	6-10년	0.00	1.93	77.04	21.03
	11-20년	0.00	0.65	64.43	34.92
	21-30년	0.00	0.28	53.90	45.82
	31년이상	0.00	0.07	37.25	62.68
베트남	미국출생	15.35	58.85	25.73	0.06
	1-5년	60.99	36.45	2.56	0.00
	6-10년	33.83	55.68	10.48	0.01
	11-20년	23.27	59.40	17.31	0.02
	21-30년	20.05	59.66	20.26	0.03
	31년이상	37.03	53.96	9.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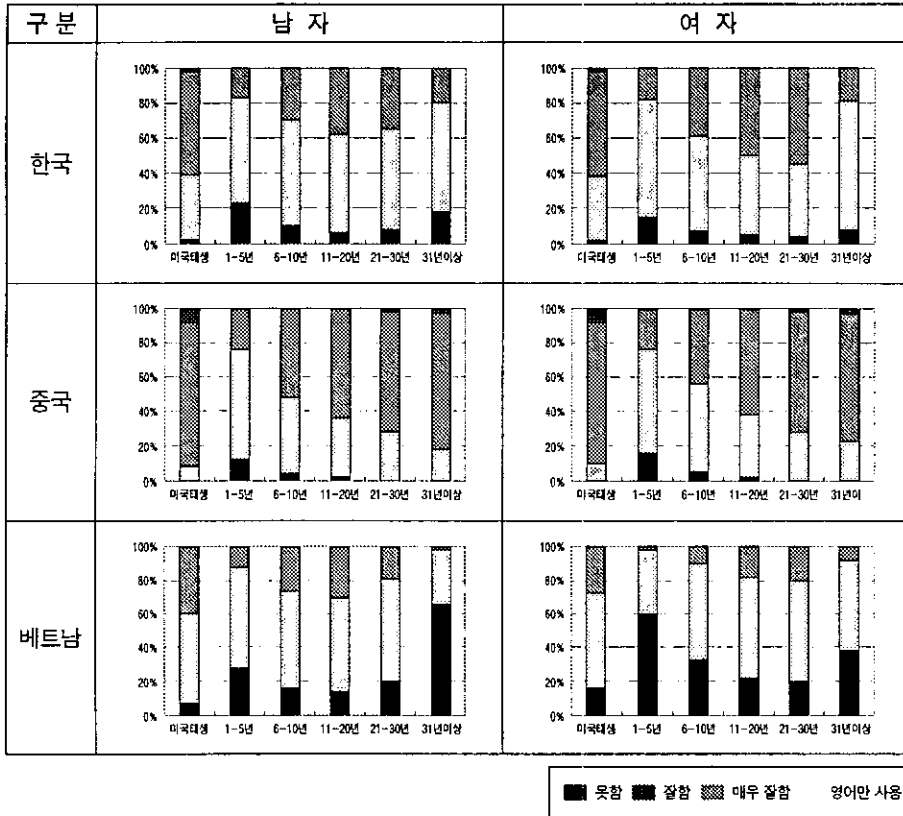
사용할 확률이 59.36%로 가장 높았으며, 이민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민기간이 31년 이상인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은 예상과는 달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 이민자들이 대체로 인적자원(human capital)이 낮은 점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활동이 젊은 계층에 비해 낮은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출생의 영어사용능력이 가장 높았다. 이민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졌으나, 이민기간이 31년 이상인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은 낮았다. 중국도 미국출생의 영어사용능력이 가장 높았고, 이민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졌다. 일본과 필리핀은 연령에 따른 영어사용능력에서와 같이 이민기간에 상관없이 높은 영어사용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7〉은 여자의 경우 인종별 이민기간에 따른 영어사용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남자의 경우와 같이 한국, 중국, 베트남은 미국출생의 영어사용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민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은 이민기간이 31년 이상인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필리핀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기간에 상관없이 높은 영어사용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1〉은 인종별 이민기간에 따른 영어사용능력을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통제하여 추정한 것이다. 이민기간이 오래되어 미국사회의 동화정도가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일본과, 영어가 모국어인 필리핀은 높은 수준의 영어사용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국, 중국, 베트남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이민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이민기간이 짧은 사람에 비해서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이민기간 약 20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된 이민자들의 영어사용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나타났다. 또한 난민(boat people)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영어사용능력이 다른 4개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화에 휘말린 모국에서의 교육기회가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에 비해 적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는 한국인의 연령과 이민당시연령에 따른 영어사용능력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연령대에서 이민당시연령이 어릴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일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민당시연령이 어리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영어사용능력이 높았다. 이것은 연령이 높은 집단의 이민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이민당시연령이 어릴수록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된다는 것

〈그림 1〉 이민기간에 따른 영어사용능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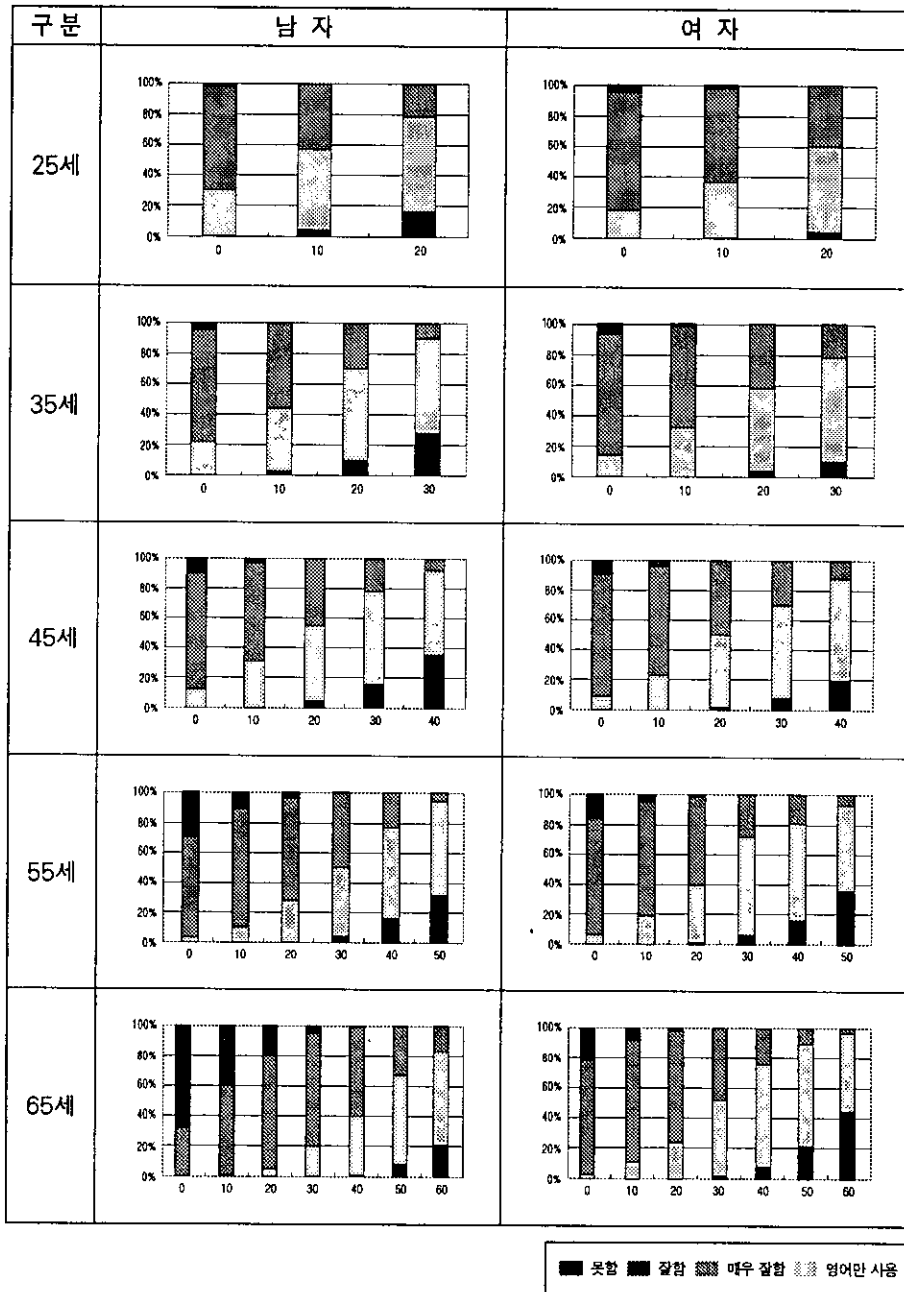


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어린 연령에 이민을 왔을 수록, 이민기간이 길수록 영어사용 능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집에서 영어만 사용했을 경우, 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이 높을수록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도 높아졌다. 특히 언어접촉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느냐 여부와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이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 같은 민족이 적게 살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개인특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이 가장 어린

〈그림 2〉 연령과 이민당시연령에 따른 영어사용능력 추정치(한국인)



연령대에 이민을 온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민사회에 거의 동화가 된 일본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연령, 이민기간에 상관없이 높은 영어사용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인에 비해 모국어의 구조상 영어사용에 더욱 유리한 중국도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영어사용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5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그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분석하여, 그들의 동화정도를 살펴보고, 이민자들이 이민국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언어문제를 분석하여 이민자들의 현지 사회 동화정도를 알아보았다.

영어사용능력 결정요인은 크게 개인특성변수와 언어접촉정도변수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개인특성변수보다 언어접촉정도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영어만 사용할 때와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이 높을 때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개인특성변수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어린 연령에 이민을 왔을수록, 이민기간이 길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졌다. 언어접촉정도변수에서는 집에서 영어만 사용했을 경우, 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영어사용능력이 높을수록 이민자의 영어사용능력도 높아졌다. 거주지역에 같은 민족이 적게 살수록 영어사용능력이 높아졌으나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사용능력으로 본 동화정도는 일본과 필리핀이 높았고,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베트남이 가장 낮았다. 아시아 5개국가들 중 일본의 미국 이민역사가 가장 큰 연유로 구성원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출생한 이민 2세, 3세라는 점에서 언어사용에 거의 제약점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모국어에서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현지 적응은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언어사용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베트남인의 경우에는 낮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국에서의 교육수준과 일정한 패를 같이 하고 있으며, 언어 습득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human capital)이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보다 낮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서의 현지언어 사용능력만으로 이민자들의 현지사회로의 동화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민자들의 전체적인 동화과정을 측정하는 데에는 소득수준(individual and household income), 귀화여부(naturalization), 주거수준(homeownership, density, affordability),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현지 언어사용능력을 소유한 이민자는 소득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현지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민자들의 현지 사회에서의 언어능력의 측정은 현지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앞으로 재외 한인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민사회동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국에서의 이민자들의 현지 언어사용능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언어사용능력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주거복지 수준 등과 같은 동화 지표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 이민자들에 대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동화현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두섭 (1998),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21(2), 144-181.
- 이광규 (2000), 《재외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금룡 (1997),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0(2), 99-134.
- 윤인진 (2000), "재외동포 정책의 발전적 전환을 위하여,"
<http://web.korea.ac.kr/~yoonin/essay/재외동포정책.htm>
- 정성호 (1998), "해외한인의 지역별 특성", 《한국인구학》 21(1), 105-128.
- 최병목 (1996), "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2), 139-173.
- Borjas, G. (1985), "Assimilation, Changes in Cohort Quality,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463-489.
- (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 1667-1717.
- (1995), "Assimilation and Changes in Cohort Quality Revisited: What Happened to Immigrant Earnings in the 198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 201-245.
- Chiswick, B.R. (1978), "The Effect of the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s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897-921.
- (1998), "Hebrew Language usage: Determinants and Effects on Earnings among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 253-271.
- (1999), "Language Skills and Earnings among Legalized Alie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63-89.
- Chiswick, B.R. and P.W. Miller (1994), "Language Choice among Immigrants in a Multi-Lingual Destin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 119-131.
- Choi, H. (1994). "Overseas Koreans and Their Adaptation Patterns", *Korea Journal* 34(1),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Dustmann, C. (1994), "Speaking Fluency, Writing Fluency and Earnings of Migr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 133-156.

- Gordon, M (1964). *Assimilation and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 W. H. (1993), *Econometric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offman, S. D. and C. R. Link (1984), "Selectivity Bias in Male Wage Equations: Black, White Comparis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6, 320-324.
- Lamm, R.D and Gary Imhoff (1985), *The Immigration Time Bomb: The Fragmenting of America*, (New York: E.P.Dutton.
- Lindstorm, D.P. and D.S. Massey (1994), "Selective Emigration, Cohort Quality, and Models of Immigrant Assimil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3, 315-349.
- Maddala, G.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yers, D. and S.W. Lee(1996), "Immigration Cohorts and Residential Overcrowding in Southern California," *Demography* 33, 51-65.
- (1998), "Immigrant Trajectories into Homeownership: A Temporal Analysis of Assimil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593-625.
- Salins, P.(1997), *Assimilation American Style* (New York: Harper Collins).
- Thio, A.(1989). *Sociology: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s & Row).
- Yuengert, A. M.(1994), "Immigrant Earnings, Relative to What? The Importance of Earnings Function Specification and Comparison Poin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9, 71-90.

(2001. 10. 27. 접수; 2001. 12. 2. 채택)

〈부록 1〉

변인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AGE	34.5376	35.7381	37.3664	34.7690	31.3576
AGE_SQ	1364.0101	1441.8419	1566.2812	1380.8461	1123.6137
ENTRYAGE	22.5992	19.6116	8.2159	17.7121	21.6986
IMM2	0.2521	0.2136	0.1563	0.1617	0.2022
IMM3	0.2374	0.2102	0.0339	0.1615	0.3748
IMM4	0.3603	0.2268	0.0558	0.2774	0.3947
IMM5	0.0547	0.0968	0.0378	0.1199	0.0069
IMM6	0.0136	0.0388	0.0265	0.0371	0.0011
EXP	7.8210	10.2496	15.1221	10.9326	4.2835
EXP_SQ	117.2790	203.1228	407.2164	218.8949	85.6024
ED1	0.1877	0.2307	0.0995	0.1875	0.3761
ED3	0.3735	0.4192	0.4078	0.2970	0.1638
STATUS1	0.2425	0.1172	0.1027	0.0503	0.0716
STATUS2	0.6045	0.7476	0.8101	0.8506	0.7188
RLANG	0.0812	0.1196	0.5132	0.1542	0.0255
CHILD1	0.1694	0.1912	0.2363	0.1468	0.0797
CHILD3	0.2700	0.2412	0.2025	0.2682	0.2193
ESPO1	0.1612	0.1231	0.0374	0.0132	0.1074
ESPO2	0.2133	0.1590	0.0783	0.1030	0.1627
ESPO3	0.1453	0.1699	0.0869	0.2810	0.0958
ESPO4	0.0341	0.0800	0.3254	0.0964	0.0084
NUM_AREA	6216.3473	19155.0000	10765.0000	21634.0000	7294.9363

〈부록 2〉

변인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AGE	35.0676	35.7914	40.1638	36.0732	32.7580
AGE_SQ	1380.4973	1436.9979	1806.2155	1458.3433	1218.7320
ENTRYAGE	22.5750	20.2295	11.6641	20.5671	22.6398
IMM2	0.2296	0.2313	0.1376	0.1955	0.2196
IMM3	0.2102	0.2074	0.3655	0.1829	0.3115
IMM4	0.4046	0.2334	0.0873	0.3035	0.4291
IMM5	0.0795	0.1000	0.0947	0.1093	0.0188
IMM6	0.0123	0.0314	0.0902	0.0252	0.0021
EXP	9.5641	10.4683	17.4797	10.8859	8.1343
EXP_SQ	162.9470	211.2890	497.4129	208.0761	112.9900
ED1	0.2711	0.2593	0.1207	0.1905	0.4743
ED3	0.2320	0.3397	0.2903	0.3788	0.1025
STATUS1	0.1411	0.0738	0.0554	0.0361	0.0650
STATUS2	0.5819	0.6993	0.6998	0.8241	0.5979
RLANG	0.1265	0.1207	0.4762	0.1567	0.0413
CHILD1	0.5544	0.6219	0.6924	0.5755	0.5470
CHILD3	0.3181	0.2668	0.2181	0.3109	0.3512
ESPO1	0.1876	0.1623	0.0747	0.0164	0.1742
ESPO2	0.2082	0.1610	0.1047	0.1132	0.1726
ESPO3	0.1540	0.1622	0.1208	0.3100	0.1188
ESPO4	0.0639	0.0827	0.3159	0.1057	0.0243
NUM_AREA	5506.3678	19299.0000	9979.1705	20380.0000	7247.5562

Determinants of English Ability among Korean and Other Asian Immigrants in the US

SeongWoo Lee · SungHee Min · SungSoo Kim

The development of language skills among immigrants is important for their economic adjustment in their host societies since language is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skill levels of immigrants relevant for the labor markets of the host countries. Moreover, language plays a key role in the social adjustment of immigrants and in the social and political cohesion particularly in the society like the US that has diverse racial and ethnic groups. The main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nglish abilities of Korean and other Asian immigrants in the US. The present study utilizes the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 A, 5%) in the US. We adopted the ordered probit technique to analyze qualitative differences of English ability. The study found that English fluency increases with a longer duration in the US,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living in an area in which a smaller proportion speak ones mother tongue, a younger age at immigration, a higher level of schooling. However, there are marked variations in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among Asian immigrants.

Key Words: immigration, assimilation, English ability, United States, Asian immigrants